

인서울 학생부교과 합격선 ‘인문 2.28·자연 1.92등급’

올해 최종등록자 70% 컷 분석
자연계 합격선, 5년간 꾸준히 상승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선도 올라

2026학년도 서울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이 인문계 2.28등급, 자연계 1.92등급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계 합격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며 처음으로 평균 1등급대에 진입했다.

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최종등록자 70%컷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자연계 교과전형 합격선은 2022학년도 2.22등급에서 2023학년도 2.15등급, 2024학년도 2.13등급, 2025학년도 2.08등급, 2026학년도 1.92등급으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인문계는 2022학년도 2.45등급, 2023학년도 2.34등급, 2024학년도 2.57등급, 2025학년도 2.58등급에서 2026학년도 2.28등급으로 높아졌다. 2025학년도와 비교하면 합격선이 0.30등급 상승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전국 205개 대학의 9087개 학과로, 지역별로는 서울권 41개 대학, 경인권 44개 대학, 지방권 120개 대학이다.

자연계 합격선은 최근 5년 연속 인문계보다 높았다. 두 계열의 격차는 2022학년도 0.23등급, 2023학년도 0.19등급, 2024학년도 0.44등급, 2025학년도 0.50등급, 2026학년도 0.36등급이었다.

경인권과 지방권 대학의 교과전형 합격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경인권은 인문계 3.37등급, 자연계 3.12등급이었으며 지방권은 인문계 4.35등급, 자연계 4.16등급으로 나타났다.

서류와 면접 등이 반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합격선이 상승했다. 서울권 대학은 인문계 3.04등급, 자연계 2.69등급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았다.

경인권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선은 인문계 3.81등급, 자연계 3.38등급, 지방권은 인문계 4.65등급, 자연계 4.39등급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문계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경제학부로 1.00등급이었다. 서울대 지역균형 국어교육과 1.14등급, 정치외교학부 1.15등급, 대구한의대 지역인재 한의예과 인문계열 1.17등급, 연세대 추천형 정치외교학과 1.20등급, 고려대 학교추천 정치외교학과 1.23등급 순이었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는 의약학계열 강세가 두드러졌다. 최종등록자 70%컷 기준으로 연세대 추천형 의예과, 경희대 지역균형 의예과, 인하대 지역균형 의예과의 합격선이 모두 1.00등급이었다. 순천향대도 교과우수자·충남형지역인재·일반학생전형 의예과가 모두 1.00등급을 기록했다. 이 밖에 울산대 지역교과 의예과, 가톨릭대 지역균형 의예과, 아주대 고교추천 의학과, 강원대 일반교과 의예과, 동국

대 학교장추천인재 약학과, 순천대 교과일반 약학과도 1.00등급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고3 학생 수가 전년보다 3만7467명 늘어난 데다 내신 성적이 좋은 N수생도 수시모집에 상당수 지원하면서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7학년도에는 현행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다. 고3 학생 수는 43만520명으로 전년보다 1만3026명 줄지만, 2024학년도 39만4940명과 2025학년도 40만6079명보다는 많다.

현행 대입제도의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수시를 준비한 N수생이 다시 지원하고, 수험생들이 무리한 상향지원보다 안정지원을 택할 경우 합격선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현 고1·2 학생들은 기존 9등급제 합격 자료만으로 대학별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초등학생 3000명에 AI·SW 체험교육

서울AI재단, 6개 초등학교 대상
‘AI·SW 활성화 교육’ 운영
교원에 AI 역량 강화 연수도

서울AI재단이 서울지역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운영한다. 정규 수업과 연계한 체험교육은 물론 주말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AI재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소재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 AI·SW 활성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개원초, 서울대명초, 서울반원초, 서울신영초, 서울잡일초, 서울해누리초 등 6개 학교의 3~6학년 학생 약 3000명이다. 참여 학교는 AI·SW 교육 인프라와 디지털 학습환경,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와 연계해 AI와 SW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생들은 AI 윤리, 알고리즘, 데이터 이



서울개원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난 7월 진행된 ‘2026 AI·SW 활성화 교육’에서 블록코딩 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해, 생성형 AI 활용, 로봇 제어와 코딩 등 AI·SW 핵심 내용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3~4학년은 AI 윤리와 블록코딩, 로봇 제어 등 기초 체험교육을 받고, 5~6학년은 AI 기반 로봇 구현과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육에 참여한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말 체험교육도 마련된다. 오는 8월 8일과 22일 서울 AI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화차별 3차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 학생들은 센터 주요 시설과 AI 혁신기업 기술을 체험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한다.

참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함께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초등 AI 교육 우수 사례와 생성형 AI 활용 방안 등을 공유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누구나 AI를 쉽고 올바르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이 미래 AI 인재가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는 14일 ‘수원 국가유산 야행’ 열려

수원화성 배경 대표 야간축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주변 문화시설을 무대로 한 야간 문화축제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열 번째 밤, 수원연향’이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다.

수원특레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수원화성과 인근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공연과 전시, 체험,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원의 대표 야간 축제다.

올해는 야행 개최 10주년을 맞아 ‘열 번째 밤, 수원연향’을 주제로 수원화성의 역사와 야경을 배경으로 사람과 빛,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밤의 축제를 선보인다.

특히 올하는 행사 공간과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용연 일대 중심에서 화성행궁 광장과 팔달문 인근까지 행사장을 넓혀 더욱 다양한 공간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지역 예술인들이 주요 거점에서 거리 예술 공연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행사는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 등 ‘8야(夜)’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경과 야화 프로그램에서는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야간까지 연장 개방한다. 10주년 기념 점등식 ‘열 번째 밤, 함께 한 빛’을 시작으로 화흥문과 수원천을 미디어아트로 연출한 ‘밤빛 품은 수원천’이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야로와 야사에서는 성곽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환경보호 플로깅 ‘쓰담쓰담 수원화성’, 해설사와 함께하는 ‘수원화성 달빛산책’, 모바일 스탬프 투어, 정조대왕과 장영영 군사들의 이동형 퍼포먼스 등이 마련된다.

야설 프로그램은 용연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밤빛 용연, 소리꽃이 피다’와 무예 뮤지컬 ‘1790’을 비롯해 국악, 재즈, 밴드 공연 등으로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부산시 “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목표”

해운대~달맞이교개 등 6.2km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전국 최초 대상지로 해운대 관광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운대 관광특구는 1994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낸 ‘글로벌 관광특구 사업계획서’가 문체부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은 지난 8월 지정된 동구 크루즈 관광특구를 포함해 관광특구 3곳을 운영 중이다.

사업에는 앞으로 2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해운

대·송정해수욕장~구남로~영화의전당~누리마루 APEC하우스~백스코~달맞이교개 등 6.2km가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구에선 ‘ALL-TIMEHAEUND AE’를 테마로 연중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AI 무인관광안내소와 외국인 스마트 결제, 지능형 CCTV도 도입한다. 호텔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맺어 숙박요금 급등을 막고, 맞춤형 체크아웃 시스템으로 체류 시간도 늘린다.

전재수 시장은 “30여 년간 살아온 인프라와 브랜드 경쟁력으로 전국 첫 글로벌 관광특구가 됐다”며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오래 머무는 관광도시 만들 것”

APEC 정상회의 경험 등으로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충 박차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역사문화자원과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One More Night, Gyeongju’를 핵심 브랜드로 내세워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글로벌 브랜딩 및 해

외 홍보 ▲지속가능관광 인증체계 도입 ▲AI 기반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 ▲야간관광·신라문화 체험콘텐츠 확대 ▲외국인 간편결제 및 통합투어패스 구축 ▲AI 컨시어지 키오스크 설치 ▲외국인 관광택시와 순환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경주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학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관광기업과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은 경주가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해 오래 머무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